

# “운동할 때 남보다 2개만 더해라”

KIA '특급 신인' 윤영철 마음 울린 '대투수' 양현종의 조언

올해 고교야구 최고 좌완투수...18경기 13승 2패 평균자책점 1.66  
2023 신인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KIA지명 '완성도 높은 신인'  
“신인상 받고 싶지만 일단 1군 오래 있고파...상 탄다면 더 기쁠 것”

KIA 타이거즈 양현종(34)이 신인 좌완투수 윤영철(18)의 가슴을 울리는 조언을 했다.

올해 고교야구 최고의 좌완투수로 꼽힌 윤영철은 올해 18경기(65⅓이닝) 13승 2패 평균자책점 1.66을 기록하며 총암고 에이스로 리그를 지배했다. 2023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2순위로 KIA의 지명을 받았다.

완성도 높은 신인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영철은 지난 2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2 아마추어 스타대상' 시상식에서 스타투수상을 수상했다.

윤영철은 수상 후 인터뷰에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다. 프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구단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시즌이 끝나고 휴식할 수 있었다. 몸상태는 문제 없다. 관리도 잘해주셔서 멀쩡하다. 구단에서 운동시켜주는대로 열심히 하면 내년

더 나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내년 시즌 활약을 자신했다.

KIA에는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투수 양현종이 있다. 통산 159승을 거둔 양현종은 많은 어린 투수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롤모델이다.

KIA 입단 후 양현종을 만난 윤영철은 “양현종 선배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배님께서 잘 던지고 싶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운동을 딱 2개만 더 해라’라고 하셨다.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신경써서 하고 있다. 남들보다 운동을 한두개씩만 꾸준히 더 해도 어느 순간 좋아질거라고 하셨다”라며 양현종의 조언을 떠올렸다.

정말로 남들보다 2개씩 더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웃으며 “그렇다”라고 답했다.

KIA에는 2021년 신인상을 수상한 좌완투수 이외리도 주축 선발투수로 활약중이다.



“나도 신인상을 받고 싶다”라며 웃은 윤영철은 “이외리 선배가 엄청 잘해서 신인상을 받으신 것이다. 나도 신인상을 받고 싶지만 일단 1군에서 오래 있고 싶다. 나중에 기회가 돼서 상을 탄다면 더 기쁠 것 같다”라고 말했다.

KIA는 특급 좌완 유망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윤영철을 조심스럽게 육성할 계획이다. 윤영철이 모두의 기대대로 리그를 대표하는 좌완투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오후 카타르 알리안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2차전 일본과 코스타리카의 경기, 코스타리카에 0-1로 패한 일본 선수들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코스타리카전 패배로 16강 계획 물거품” 日 언론

일본 언론 “기회 살리지 못해”  
“패스 부주의로 통한의 실점”

일본 축구대표팀(FIFA랭킹 24위)이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일본은 E조에서 FIFA랭킹이 가장 낮은 코스타리카(31위)에 패했다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은 지난 27일(한국시간) 밤 카타르 알리안 아흐메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코스타리카와 2022 카타르월드컵 E조 2차전에서 0-1로 석패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독일에 2-1 역전승을 거뒀던 일본은 여세를 몰아 코스타리카전에서 2연승을 노렸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일본은 마지막 스페인전에 이겨야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

일본은 코스타리카전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이기면 16강 진출이 확정되기 때문에, 일본 내 시청률은 무려 42%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니치 아뉴스’는 “코스타리카전에 이겨 16강에 오르는 시나리오가 붕괴됐다. 일본 축구대표팀이 공세로 전환하다가 실수로 실점을 했다. FIFA 순위가 아래의 상대에게 패했다”고

보도했다.

모리야스 하지메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은 “힘겨운 싸움이 되겠지만 스페인에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스페인전에서는 다른 게임 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독일전을 분석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축구팬들 역시 결승골을 허용한 순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닛칸스포츠’는 “몇 차례나 기회를 잡기도 상대의 골네트를 흔들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풋볼 존’은 “미국의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대회 전 일본의 16강 진출 확률은 34%였고, 독일전에 승리하면서 75%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전 패배 29%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최고의 무대에서 패스 부주의로 통한의 실점을 했다”고 충격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16강 진출 ‘경우의 수’에 대해 분석했다.

매체는 “일본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면, 조 2위 이상의 자리를 확보해 16강에 오를 수 있다. 비길 경우, 독일-코스타리카전 결과에 따라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최종전에서 패하면 무조건 탈락이다”고 설명했다.



## 이정후·김광현·박병호·이대호 등 골든글러브 후보 확정

후보 총 89명 중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

KBO(총재 허규원)는 28일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올 시즌 활약한 구단 소속 기준으로 총 89명이며, KBO리그에서 포지션 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다.

골든글러브 후보 선정 기준은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과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 X 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2/3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단, 타이틀홀더에 한해 여러 포지션 출전으로 어느 포지션에서도 수비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수비인임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수비인임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는 각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투수 부문 후보는 총 32명의 후보가 선정됐다.

한국시리즈 우승팀 SSG 워너 폰트, 김광현, 오원석, 노경은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키움 안우진, 에릭 요키시, LG 케이지 켈리, 아담 플릿코, 이민호, 고우석, 정우영, KT 고영표, 소형준, 엄상백,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 김민수, 김재윤, KIA 양현종, 이외리, 정해영, NC 드류 루친스키, 구창모, 삼성 알버트 수아레즈, 원태인, 데이비드 뷰캐넌, 오승환, 롯데 찰리 반즈, 박세웅, 두산 로버트 스타, 최원준, 곽빈, 한화 김민우 등 10개 구단 모두 투수 부문에 후보를 올렸다.

포수 부문 후보는 키움 이지영, LG 유강남, KT 장성우, KIA 박동원, NC 양의지, 두산 박세혁, 한화 최재훈 등 7명이 선정됐다. 1루수는 LG 채은성, KT 박병호, KIA 황대인, 삼성 오재일을 비롯해 총 4명이 후보가 됐다.

2루수 후보로는 키움 김혜성, KIA 김선빈, NC 박민우, 삼성 김지찬, 롯데 안치홍, 두산 강승호, 한화 정은원으로 총 7명이 등록됐다. 3루수에는 SSG 최정, 키움 송성문, LG 문보경, KT

황재균, KIA 류지혁, 롯데 한동희, 두산 허경민까지 7명이 경쟁하게 됐다.

유격수 부문에서는 SSG 박성환, 키움 김휘집, LG 오지환, KT 심우준, KIA 박찬호, 한화 하주석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명타자 부문은 SSG 추신수, KIA 최형우, 롯데 이대호, 두산 호세 페르난데스 총 4명이다.

좌익수와 중견수, 우익수의 구분 없이 3명이 선정되는 외야수 부문은 가장 많은 22명이 후보로 올랐다.

SSG 최지훈, 한우성, 키움 이정후, 아시엘 푸이그, 김준완, LG 박해민, 홍창기, 김현수, KT 배정대, 조용호, KIA 나성범, 이창진, 소크라테스 브리토, NC 손아섭, 삼성 호세 피렐라, 김현준, 구자욱, 롯데 전준우, DJ. 피터스, 두산 정수빈, 김재환, 한화 마이크 터커먼 등이 후보다.

KIA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전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했으며 LG, KT와 함께 가장 많은 12명의 후보를 기록했다.

한편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28일 오전 9시부터 12월1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오는 12월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 선발·불펜 가능한 한현희, FA 시장에서 '냉담'

올해 FA 'A' 등급 선수 중 유일하게 한현희(29)만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동원(LG 트윈스), 박세혁(NC 다이노스), 유강남(롯데 자이언츠), 채은성(한화 이글스)이 새로운 팀을 만났고, 박민우는 원소속팀 NC와 8년 최대 140억원이라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B등급인 양의지는 무려 6년 최대 152억원에 친정팀 두산 베이스 유니폼을 입었고, 퓨처스 FA 이형종도 키움 히어로즈와 4년 20억원에 사인할 정도로 이번 FA 시장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한현희는 선발과 불펜이 모두 가능해 이른 시간에 FA 계약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2012년 넥센에서 데뷔한 한현희는 올해까지 줄곧 히어로즈에서만 활약했다.

한현희는 통산 416경기에서 65승 43패 8세이브 105홀드에 평균자책점 4.26을 기록했다. 올해는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21경기에 등판, 6승 4패 평균자책점 4.75의 성적을 남겼다.

## “김민재, 월드컵 빨리 탈락하길”...伊기자의 애정 발언

“우루과이戰 김민재 부상에 긴장”  
“나폴리 선수들 부상없이 복귀하길”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기자가 김민재의 부상을 걱정하며 한국이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으면 좋겠다고 김민재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이탈리아 지역 매체 ‘나폴리 피우’는 26일(현지시간) 카를로 알비노 기자가 카타르월드컵에 참가한 나폴리 선수들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알비노 기자는 “(지난 24일)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상대 다르린 누네스를 저지하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며 “김민재의 상태로 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투입된 후 일어나 오른쪽 중아리를 만지며 중앙 수비수에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우루과이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김민재는 현재 이탈리아의 프로 축구 클럽 SSC 나폴리에 소속돼 수비수로 뛰고 있다.

알비노 기자는 또 “김민재가 자신 있게 공을 차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며 “이번 카타르월드컵에 참가한 나폴리 선수들이 모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나폴리에 소속된 선수들이 부상 없이 복귀하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페데르바체(튀르키예)를 거쳐 이번 시즌 새롭게 나폴리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는 빠른 적응으로 리그를 대표하는 수비수 중 하나로 급성장했다.

이번 시즌 월드컵 개막 전까지 정규리그 9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포함 공식전 14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활약 속에서 개막 15경기 무패와 함께 11연승을 달리며 세리에 A 단독 선두에 자리하고 있다. 김민재는 9월 세리에A 이탈의 선수상도 받았다.

김민재는 자유계약(FA)을 통해 우리은행으로 전격 이적했다.

지난달 26일 휴경기로 치러진 전경태와의 첫 맞대결에서 9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앞장선 김민재는 이적 후 첫 인천

원정에서 13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활약, 트리플더블을 작성했다.

지난 4일 청주 KB국민은행전에서도 트리플더블을 작성했던 김민재는 올 시즌에만 벌써 두 번째 트리플더블을 해냈다. 개인 통산 6번째(정규리그 5회·플레이오프 1회)다.

김민재는 자유계약(FA)을 통해 우리은행으로 전격 이적했다.

지난달 26일 휴경기로 치러진 전경태와의 첫 맞대결에서 9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앞장선 김민재는 이적 후 첫 인천

원정에서 13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활약, 트리플더블을 작성했다.

지난 4일 청주 KB국민은행전에서도 트리플더블을 작성했던 김민재는 올 시즌에만 벌써 두 번째 트리플더블을 해냈다. 개인 통산 6번째(정규리그 5회·플레이오프 1회)다.

김민재는 자유계약(FA)을 통해 우리은행으로 전격 이적했다.

지난달 26일 휴경기로 치러진 전경태와의 첫 맞대결에서 9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앞장선 김민재는 이적 후 첫 인천

원정에서 13득점 10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활약, 트리플더블을 작성했다.

지난 4일 청주 KB국민은행전에서도 트리플더블을 작성했던 김민재는 올 시즌에만 벌써 두 번째 트리플더블을 해냈다. 개인 통산 6번째(정규리그 5회·플레이오프 1회)다.

김민재는 자유계약(FA)을 통해 우리은행으로 전격 이적했다.

지난달 26일 휴경기로 치러진 전경태와의 첫 맞대결에서 9득점 8리바운드 8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앞장선 김민재는 이적 후 첫 인천